

# 7월 새벽별도서관 영화상영안내

##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특별전

상 상 이  
현 실 이 되 는 세 상

공모전 참고 영화 상영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

이번 달은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개최를 맞아 공모 주제와 관련된 참고 영화들로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영화들은 새벽별 도서관 1층 iCommons 내 오디오룸에서 상영할 예정이며,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도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

**상영일시** 2019년 7월 2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영화개요** 모험, 드라마, SF | 144분 | 2015년 **감독** 리틀리 스콧 / **출연** 게리 올드만, 에이사 버터필드, 칼라 구기노 등

화성에서 태어난 소년, 가장 로맨틱한 우주를 만나다!  
무중력 상태의 미지의 땅, 화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최초의 지구인 가드너. 그의 최대 관심사는 지구와 그 곳에 살고 있는 소녀 톨사다. 지구에 대한 호기심과 톨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고 지구로 생애 첫 여행을 떠난다.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 너에게 갈게!



### 마션

**상영일시** 2019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영화개요** 모험, SF, 드라마 | 121분 | 2017년 **감독** 피터 젤섬 / **출연** 맷 데이먼, 제시카 차스테인, 세바스찬 스탠 등

NASA 아레스3탐사대는 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고 팀원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 그를 남기고 떠난다. 극적으로 생존한 마크 와트니는 남은 식량과 기발한 재치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 노력한다. 마침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구에 알리게 된 마크 와트니 NASA는 총력을 기울여 마크 와트니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레스 3 탐사대 또한 그를 구출하기 위해 그들만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상영일시**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영화개요** SF, 드라마 | 150분 | 1968년 **감독** 스탠리 큐브릭 / **출연** 케어 돌리, 게리 록우드 등

인류에게 문명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검은 돌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목성으로 향하는 디스커버리호 안에는 선장 '보우만'과 승무원 '폴',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할'이 타고 있다. 평화롭던 우주선은 '할'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기를 맞는다. 특이한 이 영화는 60년대 작품으로 인간이 아직 달에 가기 전에 만들어진, 올해 개봉 51주년을 맞이한 기념비적인 SF 우주 영화이다.



### 더문

**상영일시**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영화개요** SF, 스릴러 | 97분 | 2009년 **감독** 던칸 존스 / **출연** 샘 록웰, 케빈 스페이시, 로빈 초크 등

가까운 미래. 달 표면의 자원채굴 기지에 홀로 3년간 근무중인 주인공 샘 벨. 그는 통신위성 고장으로 3년간 외부와 단절되어 자신을 돕는 컴퓨터 거터와 대화하며 외롭게 일하고 있다. 긴 3년의 근무를 끝내고 2주 후 귀환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희망에 부풀 샘. 그러나 샘은 어느 날 기지 안에서 신비로운 한 여인을 환영처럼 보는가 하면, 기지 밖에서도 미스터리한 존재를 보게 되면서 달 기지에 무언가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된다. 환영인지 실체인지 알 수 없는 존재를 조사하던 샘은 중 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는데...



### 유로파 리포트

**상영일시**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영화개요** SF, 스릴러 | 90분 | 2013년 **감독** 세바스찬 코르데로 / **출연** 살토 코플리, 미카엘 니크비스트, 카롤리나 위드라 등

미지의 세계, 유로파 탐사, 발견 그리고 공포가 펼쳐진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결성된 유로파 탐사대. 인류 최초로 유로파 위성을 밟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얼음이 갈라지면서 탐사대원이 사망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관제센터와의 모든 통신이 끊겨 버리는데... 사고로 지구로의 귀환도 실패한 상황, 의문의 빛무리가 그들을 서서히 조여온다!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Vol. 45 20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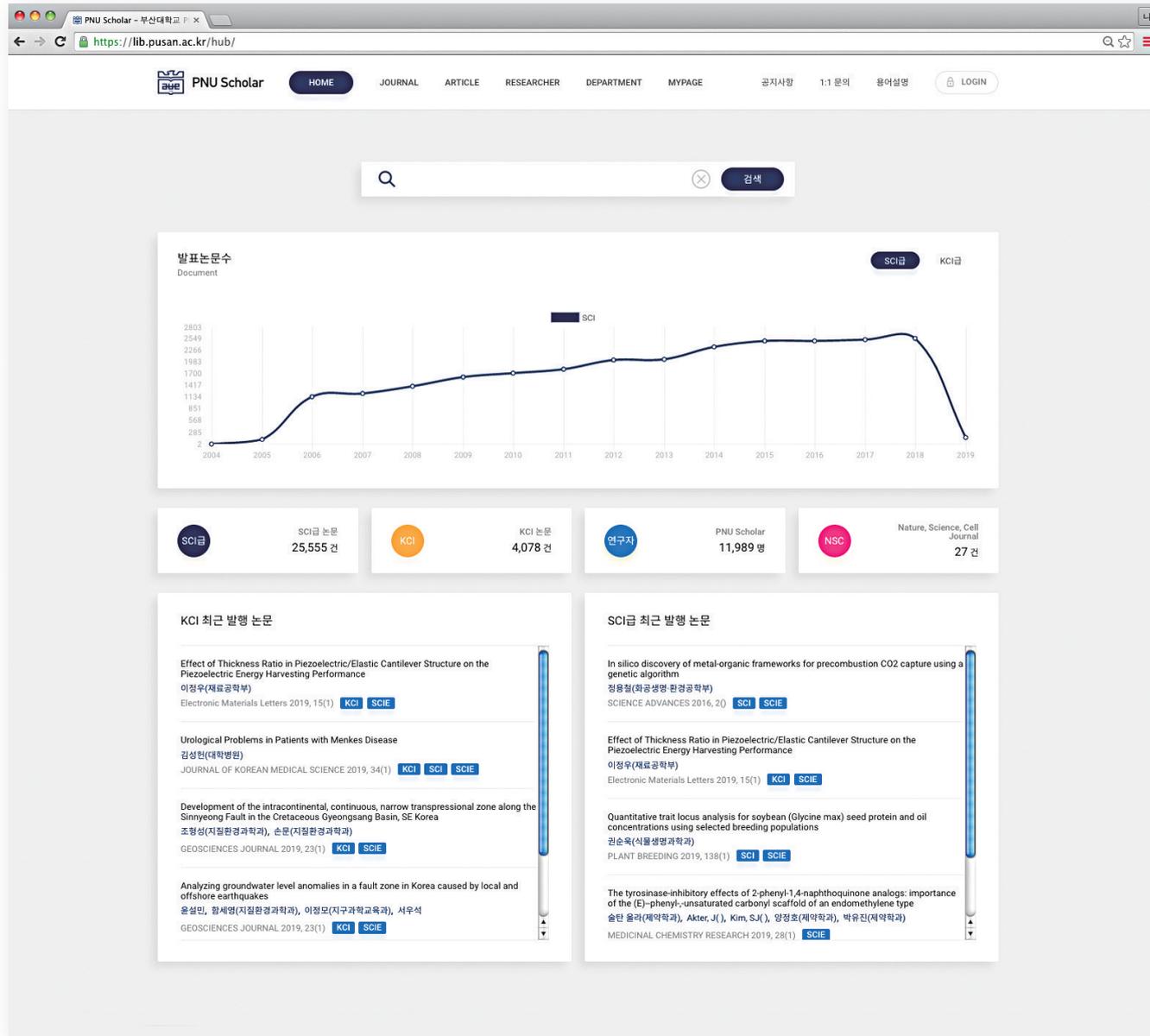


##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PNU Scholar 사이트 오픈  
2019년 과학독서 문화사업
- 08 **특집 기사** 서울국제도서전
- 12 **사서추천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 14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6 **여기 issue** 오월의 함성 5·18 민주화운동
-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종이책 vs 전자책
- 20 **#발견 #이곳** 지금 떠오르는 경남의 도세권(圖勢圈)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만원의 행복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19. 6. 20.  
편집 김미선, 전태경, 정재훈, 최덕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library.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성과 통합분석의 오픈마인드  
**PNU Scholar**

도서관에서는 2008년부터 SCI급 저널과 논문을 기반으로 한 SCI서비스(http://sci.pusan.ac.kr)를 시행하여 대내·외 기관과 연구자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정보 환경과 늘어나는 데이터를 수용하기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새로운 연구성과 통합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연구성과 통합분석 서비스는 오픈 플랫폼(WordPress)으로 개발하였고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타 대학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PNU Scholar라는 이름으로 2019년 5월 1일 새롭게 오픈한 연구성과 통합분석 서비스 홈페이지는 기존의 SCI 서비스 기능을 수용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와 검색기능을 추가하였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HOME**

우리 대학 연구자들이 2004년부터 발표한 논문 수를 그래프로 볼 수 있고 SCI 최근 발행 논문과 KCI 최근 발행 논문을 확인 할 수 있다.

**JOURNAL**

연구자가 직접 저널의 등재 유형, 인용지표, 랭킹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우리대학 연구자의 최근 등재 논문, 주요 등재 학과가 표시된다.

**ARTICLE**

부산대 연구자가 발표한 SCI급 논문의 제목, 초록, 피인용 수를 볼 수 있으며, 저자가 발표한 다른 논문, 동일한 학술지에 발표한 다른 논문도 볼 수 있다. 또한 구독 중인 학술 DB와 연결하여 FullText 링크를 제공한다. 향후 KCI, Scopus 논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RESEARCHER**

단과대학 소속학과별로 연구자를 검색할 수 있고,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공동연구자 리스트를 볼 수 있다.

**DEPARTMENT**

학과연구자, 연도별발표 논문수, 공동연구 기관, 등재 논문, 등재 저널리스트를 볼 수 있고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MYPAGE**

본인의 프로파일, 발표한 논문, 인용지표, 공동연구, 평가지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019년 과학독서 문화사업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2018년 1월 김세연 국회의원, (주) DRB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와 과학 인재 발굴을 위한 과학 및 SF 창작문화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첫 사업으로 지난해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는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와 더불어 제1회 과학독서 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과학 독서를 통한 창작 활동의 키퍼가 되고자 한다.

PNU-DRB

# 과학독서 아카데미

SCIENCE READING  
ACADEMY PNU X DRB

###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 첫 개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 과학을 매개로 한 창작 활동을 지역에 확산하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 향토 기업 DRB와 함께 「PNU-DRB 과학독서 아카데미」를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대주제 아래 강사 참여자와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과학창작 워크숍>, 과학 문화를 함께 배우고 나누고 경험하는 과학 대중 강연과 메이커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과학 창작마당>으로 오는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진행된다.



### 메인 프로그램

#### 과학창작 워크숍

참가대상 만 13세 ~ 만 27세, 30명

#### 프로그램

#### 과학 창작 꿈나무를 위한 분야별 작가와 함께하는 1박 2일

1. 생명 혹은 뇌과학에 대한 과학 칼럼 쓰기 (송민령 작가)
2. 과학과 대중을 잇다-과학 기사 쓰기 (고호관 작가)
3. 만화로 풀어보는 과학 정보와 이미지 (김명호 작가)

참가접수 6. 10.(월) ~ 28.(금)

참가발표 7. 15.(월) 11:00

※상기 일정은 원활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일부 변경 가능

워크숍 일정 8. 17.(토) ~ 18.(일) (1박 2일)



### 부대 프로그램

#### 과학창작 마당

참가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 프로그램

#### 모두와 함께하는 재밌는 특강과 메이커 체험

1. 특강 : 이은희 작가 (8.17.(토), 15:30 ~ 17:00)  
과학과 스토리의 만남 : 코스믹 에이지, 우주에서 육아하기
  2. 메이커 체험 (8. 17.(토) ~ 18.(일), 10:00 ~ 17:00)  
책갈피, 독서등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sfc.pusan.ac.kr>) 참조

#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상 상 이 현 실 이 되 는 세 상

###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

####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 개최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은 'SF(Science Fiction, 공상 과학)'를 주제로 한 창작콘텐츠를 다루는 전국 대회로, 2018년 첫 대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대회 공모 분야는 'SF'를 소재로 △문학(시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웹툰, 단편만화) △영상(UCC, 광고, 단편영화) 등 총 3개 부문이다.

올해 주제는 블랙홀 관측과 달착륙 50주년 기념을 맞아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로 정했다. 공모 대상별로 청소년은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성인은 '21세기, 우주 개척 시대의 서막을 열다' 라는 세부주제를 정했다. 대회 주제 및 목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가 대상별 참고도서 및 영상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강연과 기획 전시로 구성된 '제2회 PNU SF Day'를 마련한다. 강연은 오는 10월 2일(수) 3시 김상욱(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SF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는 주제를 다루며, '20세기 우주 시대의 회고-달착륙 50주년' 기획 전시와 함께 부산대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참가대상

청소년 초등 4학년 ~ 고등학생

성인 대학 재학생 포함 만 27세 이하 성인

※개인 또는 단체(3인이하)참여 가능

※해당 연령의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가능(언어:한국어)

※홈스쿨링 또는 대안학교 재학생 참여 가능



### 대회일정

예선접수 8. 1.(목) ~ 9. 30.(월)

예선발표 10. 29.(화)

본선준비 11. 1.(금) ~ 12.(화)

본선대회 11. 16.(토)

※상기 일정은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일부 변경 가능

※대회일정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상내역

#### 대상

청소년 1작품(상장, 상금 150만원) 성인1작품(상장,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청소년 1작품(상장, 상금 100만원) 성인1작품(상장, 상금 200만원)

#### 우수상

청소년 1작품(상장, 상금 50만원) 성인1작품(상장, 상금 100만원)

※상장 (부산대학교 총장상)

※공모 분야와 관계없이 심사 후 대상별 작품 선정

※적격한 수상작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상 작품수와 등급(대상/우수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과학SF창작플랫폼 홈페이지  
<http://ssfc.pusan.ac.kr>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1820

# 서울 국제 도서전

## Intro

세계 4대 도서전이라고 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 영국 런던도서전, 베이징 국제도서전을 손에 꼽는다. 우리나라에도 국제도서전의 이름을 건 북 페스티벌이 있다. 바로 서울국제도서전! 6월 중순, 여름의 시작과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이 찾아왔다.



## 서울 국제도서전의 역사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인과 작가, 독자가 함께 어울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책 축제이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며 1954년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 1995년에 국제도서전으로 격상되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한국출판의 세계화, 출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정착,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표 아래 세계 주요 도서전 반열에 오르기 위해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2019 서울 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포스터는 그 어떤 수식어나 그래픽 없이 강력한 홍보 모델을 내세워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17년에는 유시민 작가, 정유정 소설가, 가수 요조에 이어 2018년에는 배우 장동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등장한 로봇 다이아나(DIANA)가 등장하기도 했다. 올해는 김형석(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강(작가), 한현민(모델)이 홍보 대사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해마다 홍보대사가 누구일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며 서울국제도서전은 도서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 주요 프로그램

서울국제도서전은 책을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읽는 사람을 잇는 연결의 장으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을 꽉 채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주제 강연

올해 도서전의 주제 '출현\_arrival'에 맞추어 국제도서전 기간 5일 동안 매일 오후 2시,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5인의 연사와 새롭게 출현한 출판의 모습을 짚어보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 출현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제 강연을 통해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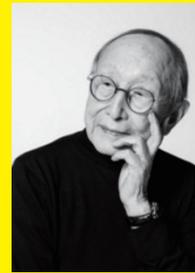
**한강**  
작가  
영원히 새롭게 출현하는 것들  
6. 19.(수) 14:00 ~ 15:30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배우  
난민, 새로운 이웃의 출현  
6. 20.(목) 14:00 ~ 15:30



**김상욱**  
물리학자  
과학문화의 출현  
6. 21.(금) 14:00 ~ 15:30



**김형석**  
철학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백년을 살아보니  
6. 22.(토) 14:00 ~ 15:30



**이육정**  
KBS오리인류 대표  
요리하다, 고로 인간이다  
6. 23.(일) 14:00 ~ 15:30



## 2019 서울국제도서전

주제 출현 Arrival  
기간 6.19.(수) ~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장소 코엑스 Hall A&B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요금 일반(20세 이상) : 6,000원  
학생(20세 미만) : 3,000원

## 참고사이트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홈페이지  
<http://sibf.or.kr>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포스트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0640129>

##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처음 만나는 신간, (여름, 첫 책) 10권

매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띠끈따끈한 신작 10권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책과 저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 도서전 기간 동안에는 도서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도서별 작가 사인회 및 강연 등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NO	출판사	도서명	저자명
1	산지니	그림슬리퍼:사우스 센트럴의 사라진 여인들	크리스틴 펠리섹
2	시공사	나의 로망, 로마	김상근
3	원더박스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정우성
4	소미미디어	마지막 마음의 기록 : 그 바다, 명량	나형수
5	한빛비즈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손미나
6	휴머니스트	아렌트의 정치 강의	이진우
7	동아시아 허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8	아작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장강명
9	생각의힘	핑권의 여름	이원영
10	민음사	항구의 사랑	김세희

##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참여 프로그램

새로운 독서 문화의 출현, 새로운 젠더 감수성의 출현(여성편, 퀴어편)을 통해 올해 출판계의 새로운 '출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출판계의 새로운 '출현'> 프로그램과 작가들의 뮤즈가 되는 작가나 작품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의 작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취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작가와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배우 이지혜와 함께 읽는 '빨강머리 앤', 배우 김석훈·오만석·곽명화의 <세익스피어 4대 비극> 낭독 공연, 나만을 위한 '3분 소설' 이벤트 등 찾아다니기 바쁠 정도로 흥미로운 행사가 가득하다.

## 출판에 관련된 다양한 강연과 콘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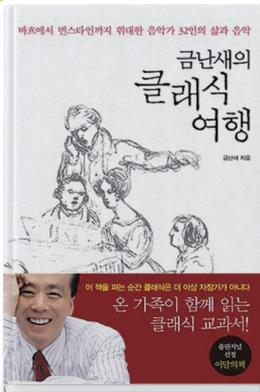
최근 출판계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새로운 출현에 주목해야 할까?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독서 행태의 변화', '독자에서 저자로, 새로운 작가의 탄생', '오디오북의 부상' 등 출판계 동향과 현안뿐 아니라 동시대 사회가 마주한 '고령화 사회와 100세 시대', '난민과 다문화 가족',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사회의 이슈를 작가, 출판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콘퍼런스도 진행된다.



## 효원인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 금난새의 클래식 여행

금난새 | 아트북스 | 2012 | 543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ADM 780.92 금211 ㄱ] 추천사서 | 정보서비스팀 백선웅



#### ‘바흐에서 피아졸라까지’

제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앞에 있을지라도 이슬 우화 속의 여우는 호리병에 담긴 것을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 결국 기분만 상해서 돌아가게 된다. 거장들에 의해 잘 차려진 클래식 음악 앞에서 왜 우리들은 항상 호리병 앞의 여우처럼 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많은 활동을 한 저자의 연주 경력을 대변하듯 이 책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이해와 재미를 선사하는 한편, 호기심을 자극하여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책 속에 소개한 곡 외에 다른 곡들로까지 귀를 향하게 만든다.

특히, 기본상식에서부터 곡별 특징과 작곡 배경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어렵기만 했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오해를 단 한 권으로 풀어버린다. 1695년 바로크 시대에 태어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부터 시작하여 1921년 생 현대 탱고 음악의 혁명가 피아졸라의 ‘망각’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의 음악 발전사를 한 편의 소설책 읽듯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그동안 수많은 영화 속에서 사용했던 클래식 음악들이 이제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영화 속에서 차지한 커다란 의미를 느낄 수 있음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선물이다.

학창 시절 입사라는 미명 때문에 강제로 제목과 형식 정도만 암기했던 클래식 음악에 대해 조금의 흥미만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곧 휴대전화로 즐겨 듣는 음악들의 장르가 바뀔 것이며 매일 통학 길에 역사 속의 거장들이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해 줄 것이다.

### 편지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권일영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7 | 416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3.36 동62 ㅅ한] 추천사서 | 과학기술팀 이은혜



#### ‘범죄자’와 ‘평범한 시민’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쓸쓸한 이방인, 가해자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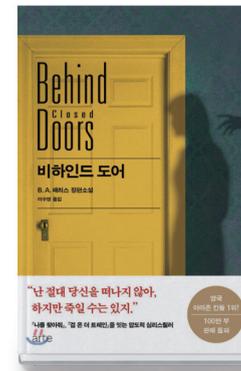
살인 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삶의 박탈’과 ‘죄값’이라는 이들의 고통은 다수의 매체를 타고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존재 뒤에 가려진 채 또 다른 고통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해자의 가족’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가해자는 물론, 그 가족 또한 가해자의 죄로 인해 지나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회는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은 같은 피로 연결된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에 갇히게 된 우리는 가해자의 가족과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유일한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표면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가족은 ‘범죄자’와 ‘평범한 시민’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쓸쓸한 이방인이 되어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간다.

형의 죄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박탈당해가는 나오키의 처절한 삶을 앞세워 작가는 ‘가해자 가족의 불행은 가해자가 지닌 죄의 연장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가해자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임을 다소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안타깝게도 작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설을 마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소설 곳곳에 해답의 실마리를 남겨두고 있다. 범죄 가해자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가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시선을 던져야 할지에 대해 이 책과 함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도서관에서는 매주 1권씩 “사서 추천 도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고 추천한 아래 4권의 도서들을 통해 책으로 더하는 감동을 효원인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 비하인드 도어

B. A. Paris | 아르테 | 2017 | 323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23.92 P232b한] 추천사서 | 정보서비스팀 여운선



#### 모든 가학적 행위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아주 사소한 ‘무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30대 여성 그레이스에게 매력 있고 지적이며 재미있는 변호사 책의 프러포즈는 악마의 유혹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폭력적인 아버지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파괴적이며 공격적, 가학적 성격을 지닌 책은 오랜 물색 끝에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레이스를 확정한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못하고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17살 어린 여동생 밀리를 돌봐줄 사람이 그레이스밖에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레이스의 순진하고 여리며 우유부단한 성격이 가학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책이 그레이스를 택하게 되는 이유다. 지옥과도 같은 저택에서 그레이스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던 책의 이중적 생활은 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레이스의 용기로 끝이 난다.

사이코적 가정폭력범 책이 그레이스를 통제하는 힘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타인을 예측시켜 하인처럼 부리면서 기쁨을 얻겠다는 책의 터무니없는 생각은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만연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했던 ‘갑질’, ‘슈퍼 갑질’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닐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주와 종업원, 상사와 부하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등 오죽하면 ‘울트라 갑’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나는 모든 가학적 행위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아주 사소한 ‘무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무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공격적, 파괴적인 인간의 본능을 깨우고 해서는 안 되는 과격한 부당행위를 초래하는 것이다. 스스로 족쇄를 푸는 용기와 더불어 사회 속의 많은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소중함과 더불어 이웃 간의 유대의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 열두 발자국

정재승 | 어크로스 | 2018 | 399 p.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12.82 정72 ㄹ] 추천사서 | 인문사회팀 김송아



#### 뇌과학자 입장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이야기

문과 출신인 나에게 과학이란, 항상 어렵고 무거우며 접근하기 힘든 분야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 책은 ‘뇌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쉬우면서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과/이과를 떠나서 어느 때보다 뇌과학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지난 10년 간 정재승 교수가 개별 강연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12개의 강연을 선별하여 주제가 난잡하지 않게 다시 집필하고 묶어, 독자를 생각의 모험으로 이끈다. 각 개별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강연들 사이사이에 이어지는 다리가 구성되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 저자는 뇌를 내 안의 1.4kg 작은 우주라고 말한다. 1.4kg 작은 우주는 진짜 우주에 비해 먼치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인식하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모습이 먼지 이상의 존재임을 대변하고 있다. 먼지로서의 자부심, 이것이 ‘먼부심’이다. 요즘 넘쳐나는 ‘나’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에세이들의 사이에서 이 책이 관심을 받는 건, 단순히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 뇌과학자 입장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지적 안테나’가 각광받듯이, 과학이라는 학문과 과학적 사고가 진리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 역사, 철학 등 인문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신뢰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사서추천도서” 안내 |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매주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서추천도서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추천 내용이 궁금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서재를 공개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찾기가 힘들거나 지친다면 독서를 권하고 싶다.  
도서관의 책들을 산책하다보면 그 '무엇' 인가를 찾을 수 있지않을까...

임동순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개** 인적으로 서재라고 할 만한 공간은 없으나, 대학 도서관이 나의 서재라고 말하고 싶다. 집에는 침실이 있을 뿐, 읽은 책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공간은 없다. 학교 연구실 또한 책을 정리해 두기 위한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몇 해 전에는 가지고 있던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해 버렸다. 읽은 책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책이란 없다. 책으로 인쇄된 내용은 이미 완성된 지식이며,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연구논문을 읽고, 주기적으로 A4 용지 박스로 모아둔 논문들을 폐기하는 것이 현대의 교수들의 삶이다. 인터넷으로 새로운 논문들을 볼 수 있는 지금은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는 일은 단 한가지 경우에 불과하다. 인터넷으로 볼 수 없는 논문을 상호대차를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받으러 가는 경우 뿐이다.

그럼에도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이 세상에 인류가 만들어온 지식이 하나의 강의를 가진 채운 먼지의 양 만큼이라고 가정할 때, 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먼지 하나 또는 두 개에 불과할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양적으로 매우 적으며, 분야 또한 매우 협소하리라 생각한다. 도서관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며 우리가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만약에 매일 3-4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읽은 책의 저자 중에는 평생 책을 읽던 두 사람이 있다. '무경계라는 책으로 유명한 켄 월버가 한 사람이며, '금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오소 라즈니쉬가 다른 한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명상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켄 월버는 듀크대학 의학과를 다니다가 명상을 시작하여, 스즈키 선사로부터 선을 공부한 후, 견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책을 매일 3-4권씩 읽고서 그는 통합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였고, 통합사회를 향해 인류가 움직이기를 제안하고 있다.

오소 라즈니쉬의 금화의 비밀은 어려운 책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출판과정을 가지고 있다. 노자에서 시작된 도교에 관한 비전(秘傳)을 청나라시대 사람이 책으로 만들고,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된 후에, 이 책을 오소가 강의하여 책으로 출판되어서 한국어로도 번역된 것이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온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책 뒷장에 남겨진 도서대출 카드를 보고니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밀양 캠퍼스 도서관에서 캠퍼스간 대출로 빌렸는데, 이 책이 원래는 나의 모교인 경희대에서 한의대 학생들에 의해 읽혀지던 책이었던 것이다. 알 수 없는 인연이다.

평생을 책을 읽으며 살아온 두 명상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다.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 행복하라는 것이다. 까르페 디엠 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듯이 행복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만, 다시 공부하며 취업 후에 행복해 지리라 꿈꾼다. 하지만 취업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이 쉽지 않다면 나는 독서를 권하고 싶다.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고 지나간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책속에 담겨있다. 도서관의 책들 사이를 산책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마음의 양식을 쌓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책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자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희열을 주기에 충분하다. 최근에 읽은 책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 책을 꼽으려면 '모략',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들고 싶다. 모략은 중국의 고전 속에서 지혜를 얻고자 펴낸 책으로 재미있는 중국의 옛 이야기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고 있는 듯한 짜릿한 쾌감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시신 교수님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 오월의 항쟁,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유신잔재의 군사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중심)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의 대한민국 정권 장악에 대해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전라남도 광주에서 촉발된 항쟁, 항거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역사적인 운동이다.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6년에는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18묘지가 국립5-18묘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당시 생산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시민들의 성명서-선언문, 일기, 취재수첩, 사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등이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아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세계도 인정한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우리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소개한다.



## 한국 사회를 뒤흔든 열흘간의 드라마 너와 나의 5·18

5-18기념재단이 2016년부터 준비해 만든 일반인과 대학생을 위한 교양서이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목숨을 바쳐 부당한 권력과 싸우며 한국 사회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다. <너와 나의 5-18> 필자들은 그 질문들이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5-18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진실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5-18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그 정신이 인권과 평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 발전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지도 파헤친다.

김정인 외. 오월의봄, 2019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51.075 김73L



## 항쟁의 진실을 기록한 최초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물로, 항쟁에 참여했던 광주시민의 시각과 증언을 온전히 담으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이번 전면증보판에서는 최근까지 공개된 5-18 당시 계엄군의 군사작전 내용과 5-18 관련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역사적·법률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애썼다. 또한 항쟁의 당사자 외에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내외신기자들의 증언과 기사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황석영 외. 창비, 2017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51.075 황53x2



## '그 도시의 열흘'과 소년을 위로하는 한강의 간절한 목소리 소년이 온다

'상처의 구조에 대한 투사와 천착의 서사'를 통해 한강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1980년 5월을 새롭게 조명한다. 한강은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어느덧 그 시절을 잊고 무심하게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직한 질문을 던지고, 여전히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그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강. 창비, 2014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36 한11s



## 비상계엄의 해제, 서울의 봄 (전남대병원 의사가 지켜본) 5-18 광주항쟁

5-18 당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이용하였던 전남대학교병원을 무대로, 의과대학 졸업한 학생이었던 저자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의료 분야의 증언에 하나를 더 얹어 놓은 것이 아니다. 당시 일상이 파괴된 병원 안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환자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저자의 시선에서, 혹은 저자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병원의 상황을 꼼꼼하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곁들여서 기록하고 있다.

박병순. 전남대출판문화원, 2018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51.075 박44o

### M O V I E



##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

낡은 택시 한 대가 전 재산으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서울의 평범한 택시운전사 '김만섭'. 그는 택시비를 벌기 위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외국 손님을 태워 광주로 향한다. 그의 택시를 타게 된 독일기자 '위르겐트츠펠터(피터)'는 사건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것이 기자'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택시비를 받았으니, 손님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태워줘야 한다는 만섭의 도리와 고립된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려야 한다는 피터의 도리에서부터 <택시운전사>는 출발한다.

장훈(감독). FNC, 2018 |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750 1



## 26년의 기다림, 복수는 시작되었다! 26년

1980년 5월. 그리고 26년 후 학살의 주범 '그 사람'을 단죄하라! 광주 수호파 중간보스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 세대문소속 경찰 권정혁,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2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을 불러 모은 보안업체 대기업 회장 김갑세와 그의 비서 김주인의 제안은 바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크비 프로젝트 드디어 그날! 저격 위치를 확보한 미진, 경찰 병력을 저지할 진배 일행, 그리고 김갑세와 주안은 탁실장을 이용하여 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연회동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데...

조근현(감독). EOS, 2013 |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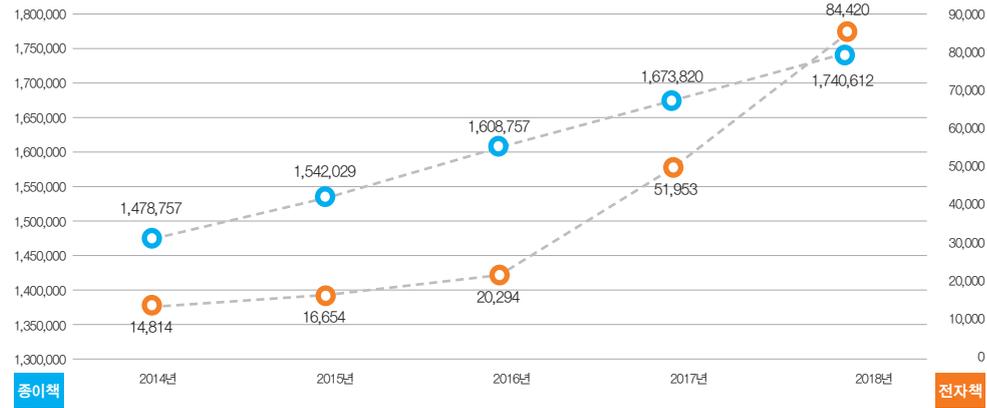
# 종이책 VS 전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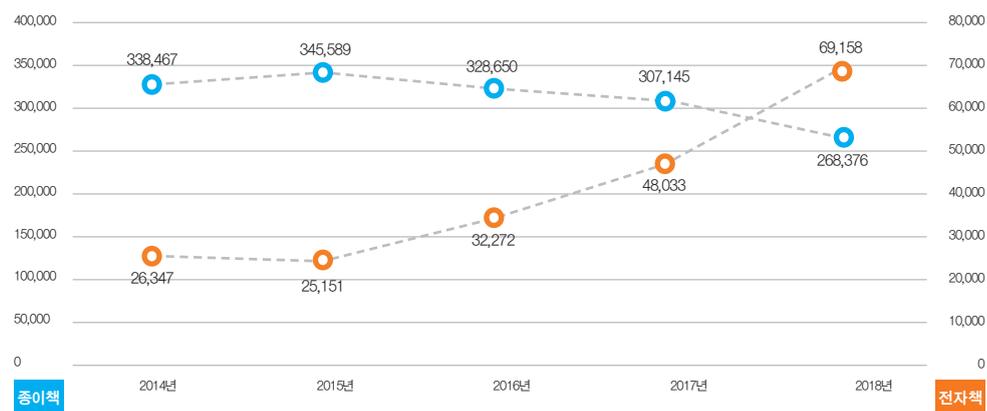
문체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중·고등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조사 결과, 2015년에 비해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은 5.4%, 학생은 3.2%가 감소한 반면, 연간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3.9%, 학생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5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서관의 종이책 vs 전자책 이용 통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장서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대출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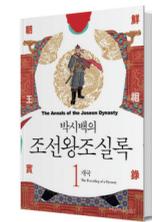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대출 책수

년도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	전자책
2014	17,197	1,063	193,254	14,501	82,913	6,642
2015	19,600	1,777	192,105	13,476	79,979	5,868
2016	21,213	1,863	170,604	16,595	73,357	8,144
2017	20,871	2,738	152,609	25,411	68,934	11,576
2018	20,141	9,856	126,244	31,673	56,008	13,553

## 2018년 대출순위 종이책과 전자책의 BEST 5



**土地**  
박경리 / 내남 / 2002  
대출횟수 219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휴머니스트 / 2015  
대출횟수 137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이마 아마리 / 예담 / 2012  
대출횟수 112



**1Q84**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동네 / 2009-2010  
대출횟수 108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 한빛비즈 / 2015  
대출횟수 108

01

**실어증입니다, 일하기 싫어증**  
양경수 / 오우아 / 2016  
대출횟수 241



02

**보통의 존재**  
이석원 / 달 / 2009  
대출횟수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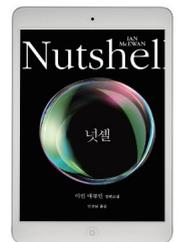
03

**우리는 어째서 이토록**  
곽정은 / 달 / 2016  
대출횟수 218



04

**넛셀(Nutshell)**  
이언 매큐언 / 문학동네 / 2017  
대출횟수 217



05

**바깥은 여름**  
김애란 / 문학동네 / 2017  
대출횟수 215



# 지금 떠오르는 경남의 도세권(圖勢圈)

## 경남 대표도서관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사림동)

**시설규모**  
연면적 7,869㎡, 지하1층/지상4층  
(본관, 어린이관, 청소년관)

**자료현황**  
총 111,304권 (2018. 12. 31. 기준)

**운영시간**  
09:00 ~ 18:00  
(일반자료실 평일 09:00 ~ 20:00,  
청소년학습실 07:00 ~ 23:00)

**휴관일**  
매주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법정 공휴일

2018년 2월 12일, 창원시 의창구의 구(舊)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경남대표도서관은 도내 도서관 정책 수립, 시군도서관 지원협력,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와 같은 정책도서관의 역할과 동시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강좌, 북콘서트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속 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이용자 연령별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본관, 어린이관, 청소년관이 별도의 건물로 지어져 각각의 이용자가 좀 더 넓고 특화된 공간에서 자료를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층으로 이루어진 본관은 성인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1층에는 장애인자료실, 연속간행물 자료실, 대강당(265석), 전시실, 북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2~3층은 단행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자료실, 디지털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 경상남도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은 경남자료실, 지역의 외국인 거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비치한 다문화자료실 등이 있다. 그리고 4층은 회의실과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진 사무공간이다. 본관 옆에 자리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어린이관을 지나면 청소년관을 만날 수 있다. 청소년관은 진로, 적성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청소년자료실과 개인학습을 위한 청소년학습실(96석), 강연과 토론, 모임이 가능한 다목적실과 토론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관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만 24세 미만의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자 경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인 만큼 인테리어와 가구, 시설에도 신경 쓴 모습이 역력하다. 편백나무 서가를 비롯하여 곳곳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세련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개인 스탠드가 설치된 이용자 테이블과 내구성 좋은 고가의 가구들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통해 인근 주민을 비롯하여 경남도민들의 관심과 방문도 이끌어내고 있다.



▲ 자료실 열람공간 ▼ 청소년자료실  
전시실 북카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집을 구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교통, 학군, 환경 등을 이야기하는 용어들이다. 그런데 요즘 '도세권(圖勢圈)'이 뜨고 있다. 부동산업계뿐만 아니라 지적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용되는 이 용어는 '도서관(圖書館)' 인근 지역을 일컫는다. 이는 도서관이 요즘 들어 지역사회의 플랫폼으로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증이자,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함께 하는 지식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이용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두 곳을 다녀왔다.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 바다 분관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24

**시설규모**  
연면적 2,642.36㎡, 지상3층

**자료현황**  
총 103,649권 (2018. 12. 31. 기준)

**운영시간**  
09:00 ~ 18:00 (1층)  
09:00 ~ 22:00 (2-3층)

**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관  
(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휴관)

2018년 4월 13일에 개관한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지혜의바다는 구(舊) 구암중학교의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 이미지를 벗은 새로운 개념의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지혜의바다는 도심 속 폐교 재활용의 본보기가 되며 타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하루 5,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할 정도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낙후된 주변 지역 상권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고, 열람전용 공간이 없으며, 책을 읽는 도중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기존 도서관의 벽을 허문 개방형 도서관 공간이 인상적이다. 옛 체육관의 필로티 주차장이었던 1층 공간은 벽을 만들어 테마별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동화방, 레고방, 보드방), 청소년을 위한 공간(상상창작방, 웹툰방), 취와 마음치유를 원하는 성인들을 위한 공간(힐링방, 홀의 쉼터)과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는 구암홀(83석)이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2층은 들어서자마자 맞이하게 되는 전면이 3층까지 서가로 이

어져있어 그 규모에 이용자들은 압도당한다. 경남에듀케이션 영문 이니셜 GNE를 구현한 서가로 어린이 책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GNE존', 어린이들의 독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벌집 형태의 독서 공간인 '꿈다락방', 평소에는 편안한 독서공간으로 활용되고 강연, 공연 등의 행사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 공간으로 운영되는 '지혜마루', 디지털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존이 벽이 아닌 공간에 각각의 느낌으로 구분되어 있다. 북층공간인 3층에서는 이용자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며 2층 지혜마루에서 열리는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개인학습을 위한 열람공간을 과감히 없애고, 주민의 독서와 문화 활동이 공존하며 온가족이 함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거실'과 같은 지혜의바다는 개방감 있는 공간 인테리어를 통해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를 깨버린다. 도서관 공간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에 들어선 랜드마크 도서관의 존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이다.



지혜마루 GNE존 ▲꿈다락방 ▼1층 로비

### Special Focus

#### [특별전시회] 1919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동여지도·부산옛지도 전시회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과 한국지리연구소, 부산대학교도서관 주관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동여지도·부산옛지도 전시회가 2019년 2월 21일(목)부터 3월 8일(금)에 중앙도서관 1층 복합 문화공간과 2층 지도자료실에서 열렸다. 전시에는 대동여지도 판본(축쇄본) 약 20여점, 1872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 서양 고지도속의 부산, 1872 북한 군현지도, DM지도 등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옛지도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2019 전자자료 박람회



2019년 4월 3일(수) 새벽별도서관 1층 로비에서 『2019 도서관 전자자료 이용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전자자료 활용법 안내를 위한 전자자료 (e-Resources) 시연 및 체험이 이루어졌고, 스탬프

이벤트, 정보검색 이벤트, 설문조사 이벤트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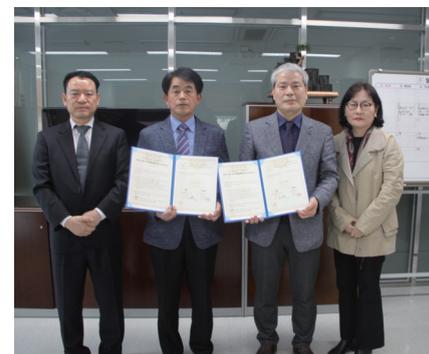
#### 새로운 전자책 서비스 <북라이브>



부산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전자책 서비스 <북라이브>를 3월부터 실시하였다. 휴대폰에 '북라이브' 앱을 최초 1회만 설치한 후 중앙도서관 구관 1층의 '북라이브' 기계에서 보고 싶은 책을 선택한 후 QR코드를 인식시키기만 하면 바로 대출된다. 매일 신간 전자책 3종을 추천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도서 1,372종, 오디오북 100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설치장소 : 중앙도서관 구관 1층 이용교육실 앞  
이용문의 : 도서관 자료개발팀 (Tel. 510-1805)

#### 영광도서관과 MOU 체결



2018년 교보문고 MOU 체결에 이어 올하는 부산 지역 서점 영광도서관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교보문고 (부산점, 부산센텀점, 해운대 바로드림센터점), 영광도서관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서 구입 시 가격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서 및 물품 구입 시 신분증(스마트 학생증, 공무원증,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을 제시하면 된다.

(※ 일부 상품 제외)

####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중앙도서관 구관 휴실



하계 방학기간 동안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서관 구관 건물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기간**  
6월 21일(금) ~ 8월 31일(토)

**중앙도서관**  
구관 1~4층

**운영방법**  
휴실(출입 및 이용불가)

-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해외학술지 문헌복사 서비스 제공 가능
- ※ 외부이용자 출입증 발급은 신관 안내데스크 이용

# 만원의 행복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 기부하는 도서구입 발전기금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학문분야 관련 학술자료를 구입하여 교수 및 학생, 연구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안입니다.



효원인의 이상과 꿈과 희망을 기증받습니다.

세계를 향한 효원인의 미래는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대학도서관의 기능은 자료를 수집·조직·축척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인 및 기관에서 기부하는 발전기금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만원의 행복

만원으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원으로 구입한 한 권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원은 책 한 권의 가치가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 📖 도서구입을 위한 발전기금유치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효원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효원인의 이상과 진리를, 학문의 열망을 도서관에서 느끼고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기발한 창의력과 끊임없는 진리탐구로 세계 속의 부산대학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01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http://fund.pusan.ac.kr>

02  
발전기금참여  
약정서 작성작성  
기금용도를 기타사업의  
장서확충으로 기입

03  
기부의사통보  
051-510-1292~3